

## 국가정보원 방문

### ■ 노 대통령 발언 요지

근래에 몇 가지 문제로 국정원이 이런저런 의심을 받고, 권한의 문제 등 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이제 마무리를 잘 하자고 다짐도 한 번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치중립’과 ‘가치중립’의 문제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난날 ‘국가의 가치’와 ‘정권의 가치’가 동일시되던 때가 있었고, 사회 많은 부분에서 ‘안보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는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 보편적 가치관 실현 위한 전략 고민이 국정원의 숙제

즉,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전략이라고 보았던 반면, 반대쪽에서는 안보와 민주주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인권·자유·평등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유보함으로써 국가안보가 튼튼해진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기관이 어떠한 국가관을 갖고 일했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편적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 를 고민하는 것이 국정원의 숙제입니다.

공직사회는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부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해왔고 그간에도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치하하며, 앞으로 더욱 수준을 높여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 ■ 직원 오찬 간담회 노 대통령 발언 요지

첫 번째 방문은 참여정부 출범초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기 위해 왔고,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비전 2005」를 보고받기 위해 왔으며, 이번은 마무리 상황을 보고 싶어 왔습니다.

국정원 조직혁신 사례는 정부 안에서도 모범적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조직혁신의 모범사례로 자랑할 만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의 방향과 성과를 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아직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러대책 업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및 갈등·분열 등 「내부적 안보 요인」에 대한 국정원의 역할부분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오로지 대통령의 신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 마음속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조직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더 일찍 오려 했는데, 마침 국민과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해준 큰 성과를 올려주어서 직원 여러분들을 격려하러 왔습니다. 임기를 마치고도 국정원이 계속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에도 국정원이 점차 늘려가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의 고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아프간 인질사태 해결 국정원 임무 잘 수행**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를 고민해야 했던 시기에 국정원이 임무를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독재정권에서는 대통령 신임 하나에만 의존하면 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노출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의 국정원은 국회에서 예산승인도 받아야 하고 법에 근거해서 조직이 존립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정부분은 노출되어야 합니다. 특히 산업정보 방어활동·사이버 안보활동 등은 홍보를 해야만 하는 매우 긍정적인 활동입니다. 이번 인질 구출활동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부 노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노출문제는 직무·작전·프로젝트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선 아닌 국정원 통해 남북 정상회담 성사**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북측 핵심과 비선으로 통할 수 있다’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용한 대화통로가 어디인지는 판가름 났습니다. 다음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비선을

만날 필요는 없고 국정원을 믿으면 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험난한 일과 자존심이 상할 만큼의 고생도 많았을 텐데 직원들이 합심하여 잘 넘겼고, 그러기에 이제는 지난 얘기를 감출 필요 없이 새로운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사 진실규명·감청 사태 등을 잘 대처해서 이같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갖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결국 조직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주변에서도 정치중립의 분위기를 만들고, 부당한 명령을 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수준 높은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기 바랍니다.